

고전소설에 나타난 군자형(君子型) 인물에 대한 고찰*

조혜란**

<차 례>

1. 서론
2. '군자'의 개념
3. 군자형(君子型) 인물의 재현
4. '여중군자'와 여성 인물의 경우
5. 결론 : 고전소설과 군자의 관계

<국문초록>

유교 경전에서 가장 바람직한 인물형으로 거론하는 것은 군자이다. 공자 이래 군자는 학문과 수양을 통해 자기 인격의 완성을 도모하고 실천하는 지식인들을 가리키는데, 조선조 현실에서 군자는 주로 신분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다. 본고는 고전소설에 나타난 군자형 인물에 대해 고찰하고 그 의미를 살피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군자의 개념에 대해 살피고, 조선에서 군자에 비견할 만한 단어로는 '선비, 은사, 처사'가 이에 해당함을 밝혔다. 군자 주인공의 등장으로는 17세기 국문장편소설 <소현성록>의 소현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주인공 유형은 군자에서 곧 영웅호걸형으로 바뀌어 갔다. 이는 조선조 소설이 인격 도야와 실천에 주력하는 군자보다는 욕망에 충실한 인물형을 선택한 데서 비롯하는 결과로 보인다. 또 여성의 경우는 조선조 현실에서는 지덕(知德)을 겸비하여 여중군자라 불리던 여성들이 있었던 데 비해 소설에서는 그런 여성인물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이는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의 행동이 도덕적 자발성에 의한 선택이라기보다는 유교적 이념에 따른 순응이나 훈육의 결과일 가능성 때문임을 논하였다.

* 이 논문은 2015년도 8월 11일에 열린 한국고전연구학회 제91차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요지를 바탕으로 논문화한 것임.

**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국어국문학전공 부교수.

□ 등장인물, 군자, 선비, 은사, 처사, 여중군자

1. 서론

유교적 가치가 삶의 준거가 되던 조선시대에 이상적 인간형으로 거론된 것은 군자(君子)이다. 『논어』에서 중요하게 거론된 ‘군자(君子)’ 역시 인격적 완성의 지향, 자기완성을 추구하는 인물 유형이었으며, 유가를 바탕으로 한 동양에서의 남성 교육은 바로 이 군자(君子) 교육에 다름 아니다). 본고는 군자에 대한 담론과 더불어 고전소설 속에 나타나는 군자라는 인물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어』, 『맹자』 등의 경전을 통해서는 물론이고,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군자는 일상적 삶을 통해서도 친숙한 것이었을 법하다. 『가곡원류』에는 연꽃을 군자에 비유²⁾한 시조가 수록되어 있고, 이는 연꽃을 군자에 비유했던 주돈이(周敦頤)의 <애련설>³⁾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하다. 고전소설의 남자 주인공들도 대개 뚜렷한 이목구비에, 충효와 글씨와 문장을 겸비하고, 문무를 겸전한 훌륭한 인물들이니, 유교 경전에서 지칭하는 군자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소설은 현실의 반영이자 욕망이 투사되는 장르이다. 인격적 완성을 지향하는 군자는 동양의 이상적 남성상인데, 현실에서 이렇게 익숙하게 다

1) 임현규는 ‘유가의 군자가 추구하는 지혜의 학이자 목적의 학으로서의 성학(聖學) 이념은 그리스의 ‘파이데이아’ 및 인문학의 이념과도 상통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임현규, 『공자의 군자론과 철학의 이념』, 『동방학』 20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163쪽.

2) ‘牡丹은 花中王이요 向日化花는 忠臣이로다 蓮花는 君子요 杏花 小人이라 菊花는 隱逸士요 梅花 寒士 | 로다’, <목단은 화중왕이요>, 『가곡원류』 942. 이와는 달리 주씨본 『해동가요』의 경우에는 蓮花를 ‘婦女’로 본 작품도 수록되어 있다.

3) 주돈이는 <애련설>에서 연꽃을 군자에 비유하였다. ‘蓮,花之君子者也’

뤄지고 중요하게 간주되던 군자라는 인물형이 소설 속에서는 과연 어떻게 그려지는지 그 재현의 양상이 궁금해진다. 박지원은 양반들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내용을 다룬 한문단편 작품들을 썼는데 특히 <마장전> 같은 작품에서는 군자의 사궐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낙차를 신랄하게 보여주었다. 박지원이 '소위 군자'들의 허위성을 폭로한 것은 군자로 지칭되는 이들이 군자답지 못 했던 18세기 당대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이며, 그가 사(士)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역시 당대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자로 지칭되던 양반들이 바로 서야 한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군자로 통용되던 이들이 군자답지 못 했던 문제들이 조선 사회의 문제였기에, 이상적 인간형으로 기대되었던 담론 상의 군자와 현실 속에서 통용되던 소위 군자라고 지칭되던 이들의 거리를 확인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필요하고도 유의미한 작업이다. 과연 조선시대의 소설 향유층은 군자 되기에 진정 자신들의 욕망과 소망을 투사했는지, 또 소위 군자라고 지칭되는 인물이 사건과 관계 맺는 방식은 어떤 것이었는지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한 검토는 조선시대 군자에 대한 담론적 차원과 현실적 차원의 거리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본고의 관심은 현실태로서 군자형 인물의 범주로 거론되던 인물들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 인간형으로 거론되던 군자형 인간과 현실태의 재현 양상으로서의 소설 인물형의 비교에 놓이게 된다⁴⁾.

4) 고전소설에는 '군자'로 불렸던 다수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이들을 귀납적으로 검토하면서 그들의 군자행을 고찰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을 보면 과연 군자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인물들도 포함되어 있다. <소현성록> 연작의 소운성 같은 인물이 바로 이런 예에 속하는 인물이라 하겠다. 소운성이 자신의 필요를 위해 소영이란 여자를 겁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서술자는 이때에도 그를 군자라고 칭한다. 소운성 경우는 군자형이 아니라 영웅소설형 인물임을 밝힌 기존 논의도 보고되어 있다. 고전소설에서 군자라고 불렸던 인물들에 대해서 보다 더 정밀하게 살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까닭으로 본고는 우선 이상적 인간형인 군자

고전소설에서 군자형(君子型) 인물 유형을 찾아내려면 그 판단의 준거가 필요하다. 『논어』에서는 107회에 걸쳐 군자에 대한 언급⁵⁾이 나오는데, 이때의 군자란 조선시대의 ‘선비’와 겹쳐지는 부분이 많아 보인다. 선비, 선비정신은 조선시대의 지식인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간주되곤 한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군자를 살피기 위해서는 우선 군자의 개념 및 선비 내지 선비정신 역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데 조선시대 자료를 보면 사(士)와 대(對)를 이루는 여사(女士)라는 표현 또한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군자의 개념 및 고전소설 남성 인물 중의 군자형 인물들을 살피고, 여성인물 중에서 이 같은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지, 있다면 과연 어떤 인물들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군자상의 소설적 재현 및 젠더적 차이에 대한 고찰은 욕망의 역동과 관련하여 군자형 인물에 대한 당대의 태도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것이다.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군자형 인물을 고찰하는 것은 조선 현실에서 군자로 호칭되던 다양한 양상의 실제 인물들을 살피는 것보다 군자와 관련한 당대의 실상을 보다 더 잘 보여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소설 속 군자와 비교하여 그 거리를 살피려 한다. 소운성에 대한 논문으로는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의 시원-〈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호, 한국고소설학회, 2011.

- 5) 박종혁,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군자론」, 『한국학논총』 3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733쪽. 107회 중 공자 본인이 언급한 것은 72회이고 나머지는 제자들이 말한 것이라고 한다. 군자의 개념을 살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논어』, 『맹자』 등 경전에 나타난 군자의 용례를 추출하여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 같은 작업은 군자에 대한 기존 연구사에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수행되었으므로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2. ‘군자’의 개념

중국 고대 하은주 시대에 사용된 ‘군자’라는 단어는 귀족 신분이나 지위가 있는 사람의 표지였다. 즉 공자 이전의 군자는 정치적 의미로서 신분과 지위의 고귀함의 표지였으며 도덕적 성취를 표시하는 단어는 아니었는데 공자에 이르러 도덕적 성취, 인격에 의한 구분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다. 『논어』의 몇 군데에서도 군자가 신분적 등급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군자는 유덕자(有德者)의 수양을 가리키고, 권력자의 위(位)와 덕(덕)의 통일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사용되었다. 비슷한 개념으로는 5번에 걸쳐 언급된 성인(聖人)이 있는데 이는 최고 지위의 인격으로 요순(堯舜) 같은 인물이 그 예이다⁶⁾. 그런데 공자는 성인은 만나보지 못 했으니 군자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⁷⁾고 하여, 성인은 관념적인 이상형으로 남겨 두고 있다.

즉 공자 이후 ‘군자’는 신분보다는 인격적 완성을 기준으로 삼아 중요하게 거론되는 인물형이 되었으며, 이상적 인간형인 성인에 미치지 못하는 하나 현실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노력하는 인간형이기에 현실적 맥락에서는 가장 소망스러운 유가적 인물 유형이기도 하다. 군자 되기에서도 인격 도야, 수양의 개념이 중요한데, ‘군자는 자기 수양을 바탕으로 남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일에 나서는 이⁸⁾이다. 자기 수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남을 편안하게 하는 일⁹⁾에 나선다는 것은 내면에 간직한 도덕성을 현실 사회에서 구현하는

6) 박종혁, 734~736쪽.

7) ‘子曰, 吾不得而見之矣, 得見君子者, 斯可矣’, 『논어』, 『술이』

8) 강봉수, 「〈논어〉 속의 인간상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 35호,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12, 62쪽.

9) ‘子路問君子. 子曰…修己以安人’, 『논어』, 『현문』

일, 벼슬에 나가는 일과 관련 된다. 도가 행해지는 세상이라면 나아가 바로잡는¹⁰⁾ 사람이기도 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출처(出處)의 선택이다.

출처는 도(道)가 행해지는가를 기준으로 삼아 벼슬살이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일이다. 유가의 군자 담론에서 군자는 남을 이롭게 하는 일, 즉 정치를 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도가 행해지기 어려워서인지는 은거(隱居)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¹¹⁾. 은거하여 살면 은사(隱士)가 되는 것일 터인데 이때의 은거란 세상과 멀리 떨어진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의 별서, 별업 등에서 지내거나 지방에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 출사(出仕)의 기회, 때를 기다리는 은사(隱士)는 『논어』에 등장하는 은자(隱者)와는 구별된다. 이 은자들은 공자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 채 모든 것을 무위의 법칙에 맡겨 두고 현실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 비참여의 길을 걷는 이들이다¹²⁾.

벼슬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함께 거론할 만한 단어로는 ‘처사(處士)’가 있다. 처사는 벼슬을 하지 않고 초야에 묻혀 사는 선비를 가리키는 단어로, 관직에 임명 받아 출사하였다가 초야로 돌아와서 생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¹³⁾. 은사(隱士)나 처사(處士)는 넓은 의미의 군자의 범주 안에

10) ‘就有道而正焉’, 『논어』 「학이」

11) 그러나 벼슬에 나아가지 않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었다. 남명 조식은 선비가 벼슬에 나아가지 않았다고 하여 세상일을 남의 일처럼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남명이 계속 출사를 거부하자 퇴계는 이를 두고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義)가 아니라고도 하였다. 변창구, 「남명 조식의 선비정신과 출처관」, 『민족사상』 7권 2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3, 221~222쪽.

12) 『논어』의 「현론」과 「미자」 편에 등장하는 은자 7명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피하고, 나라를 피하고, 문화를 버리고, 언어조차 버리려 하는 이들이다. 강봉수, 59~60쪽.

13) 김태수는 조선시대의 다양한 은거 형태의 구체적 사례들을 실제 건축물 및 자연 경관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조명하였다. 조선시대 은사, 처사의 개념에 대하여는 김태수, 「조선시대 은거선비들의 산수경영과 이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24

서 다루어질 수 있겠다.

벼슬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사(士)는 대부(大夫)와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 『논어』에는 자공이 공자에게 사(士)에 대해 질문하는 장면이 있다. 이때 공자의 대답은 ‘자기 행동에 대해 부끄러워함이 있고 사방에 사신 가서 임금의 명을 욱되게 하지 않으면 사(士)라 할 만하다¹⁴⁾’는 것이었다. 강봉수는 이를 두고 ‘사는 아직 군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인간 사회의 리더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였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공자와 그의 제자들은 처음부터 사(士)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기보다는 비천한 출신임이 암시되는 대목들이 있다고 하면서, 사(士)와 서인(庶人)은 뚜렷한 신분적 차이가 없이 상하이동이 가능한 집단이었다가 점차적으로 나뉘어 사가 서인 위에 군림하는 지배층이 되었다¹⁵⁾고 설명한다. 이런 구도에 의하면 사(士)는 군자의 아래 단계에서 군자를 지향하는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한자 ‘사(士)’가 ‘선비’로 번역되면 이때의 사(士)는 군자와 비슷한 의미 지향으로 사용된다. ‘선비’라는 단어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비어천가>의 경우는 언문 원문의 ‘선비’를 ‘유(儒)’로 한역하였고, <유합(類合)>에서는 ‘儒’와 ‘士’를 모두 ‘선비’라 새겼으며,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는 ‘士’를 ‘도·숫·사’로 풀이했는데, 이는 ‘조사(朝士)’, 조정의 벼슬아치를 가리키는 것이다. ‘선비’, ‘선비’에서 ‘선비’로 정착된 단어가 담지하고 있는 내용은 유(儒)와 사(士)에 해당한다. 이 단어에 대한 조선에서의 쓰임은 유가의 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

~27쪽 참고

14) ‘子貢問曰，何如斯可謂之士矣？子曰，行己有恥，使於四方，不辱君命，可謂士矣’，『논어』，『자로』

15) 강봉수, 65~66쪽.

유(儒)와 사(士) 외의 비슷한 것으로는 군자(君子)¹⁶⁾를 들 수 있겠다. 즉 ‘士, 儒, 君子’와 ‘선비’는 서로 통할 수 있는데, 선비정신으로 일컬어지는 선비는 ‘士, 儒, 君子’ 셋 중 군자와 가장 비근한 개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하는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선비는 사회의 지도적 계층으로 그 지위가 확립되었고, 사(士)는 굳은 지조와 사회적 책임을 지닌 인격으로서 문사와 무사를 다 포함하다가 선비의 자격으로 학문적 식견과 도덕적 행실이 강조되면서 문사의 의미가 집중적으로 부각되었다고 한다. 선비라는 말은 단지 사대부 신분에 속한 이에 대한 지칭이 아니라 학식과 덕망을 갖춘 인물에게 존경의 뜻을 실어 부르는 호칭이 되었다는 것이다. 사군자(士君子)로서 학식과 인격을 갖추어야만 세상에서 존경 받고 스스로도 자부할 수가 있었는데, 이때 사군자의 인격이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문과 수양을 통해 성취되는 것, 다듬어지는 것¹⁷⁾이다. 인격 도야야말로 선비의 징표로, 조선의 선비를 논할 때면 성경(誠敬), 심성¹⁸⁾ 등이 강조되는 것 또한 인격 도야와 유관한 것이다. 또한 조선의 선비정신은 의리와 지조 등이 강조되면서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맑은 덕을 보여주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선비 개인 즉 구체적 인물보다는 추상적 형태의 선비정신으로 논의될 때 조선의 선비는 군자의 형상에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선비의 정신은 군자의 정신과 상통한다 하겠다.

다만 유(儒)의 경우는 약간 다른 바가 있는데, 선비나 군자가 전체로

16) 김언중, 「선비, 그 용어의 기원과 의미의 내함」, 『퇴계학논집』 15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43~53쪽.

17) 조선시대 선비에 대한 설명은 금장태,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 서울대 출판부, 2000, 13~14쪽.

18) 조선의 선비의 인격 수양에 이르면 마음을 다스리는 측면이 강조된다. 위의 책, 28쪽.

논의되는 것에 비해 유(儒)는 앞의 수식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유(儒)의 경우는 군자유(君子儒)와 소인유(小人儒)로 나뉘기도 한다¹⁹⁾. 즉 유에는 군자도 있지만 소인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君子)는 유(儒)를 포함할 수 있지만 유가 반드시 군자인 것은 아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군자는 유가에 바탕을 두고 학문과 수양을 통해 자기 인격의 완성을 추구하는 인물로, 군자의 덕을 바탕으로 사회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인물이며, 그 비슷한 주변적 개념으로 처사와 은사가 있다. 선비 역시 검도 범주에 해당하는 단어이며, 선비 정신을 추구하는 선비는 군자와 상통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선비를 군자와 구별하여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본고는 위의 검토를 토대로 고전소설 속 주인공 중 군자, 처사, 은사 등 군자형 인물을 살펴보고자 한다.

3. 군자형(君子型) 인물의 재현

1) 17세기 군자형 주인공의 등장

앞에서도 확인했듯 군자에게 중요한 것은 학문과 수양이며, 인격 도야의 과정 또한 중요하다. 고전소설의 경우는 군자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므로 군자형 주인공 역시 많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조선조 소설의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다. 대표적인 작품들만 거론해 봐도 막상 군자형 인물이 드문 고전소설의 정황이 드러난다.

‘불우한 문사의 소설’로 알려진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사(士)

19) 『논어』에는 공자가 자하에게 ‘너는 군자유가 되고 소인유는 되지 말라’고 하는 장면이 나온다. ‘子謂子夏曰，女爲君子儒，勿爲小人儒’，『논어』「용야」. 『논어』 집주에 의하면, 군자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학문[爲己之學]을 하는 이를 뜻하고, 소인유는 남을 위한 즉 남에게 알려지기 위한 목적의 학문[爲人之學]을 하는 이를 뜻하는 것이다.

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⁰). 아직은 문제적 단계에 머물러 있는 다섯 주인공들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한계를 드러내거나 ‘저 너머’의 세계로 월경(越境)을 시도한다. 그들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 주인공들이다. <남염부주지> 박생의 경우는 학문에 정진하는 선비의 자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그의 울울하고 격절한 심성 상태는 인격의 완성을 이룬 군자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홍길동전> 역시 군자가 등장하는 작품은 아니다. 홍길동의 아버지 홍판서는 소인유(小人儒)에 가깝고 홍길동은 영웅적 기질을 타고 났으나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군사(軍事) 및 도술 내지 도둑질에 능한 체제 저항적 인물이니 군자와는 거리가 멀다. <구운몽>의 양소유는 유가적 인물이기는 하나 풍류에도 능한 영웅호걸형 인물에 가깝고, 성진은 불승이니 유가적 군자와는 아예 거리가 멀다. 그나마 <사씨남정기>의 유연수는 이 중 ‘군자다운 인물’일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일찍 벼슬길에 오른 유연수는 오히려 삶에 대한 통찰이 부족한 인물로 등장한다. 작품 속에서 사씨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유연수 역시 귀양길에 오르게 되는데, 이는 ‘일시 재앙을 내려 너무 일찍 벼슬길에 올라 천하의 사리를 두루 알지 못하는 그를 크게 깨우쳐 주려’ 하는 하늘의 기획에 의한 것이었다. <사씨남정기>의 유연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훌륭한 인재일 수는 있으나 군자적 면모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의 인격적 수양에 대한 정보는 거의 주어지지 않는다²¹). 오히려 인격 수양 면에서는 실패를 하는 장면을 노출한 인물이다. 처음에 모든 조건이 만족스러웠을 때 그가 보인 군자적 면

20) <이생규장전>의 이생은 벼슬을 했으나 귀신이 된 최씨녀를 다시 만난 후에는 입신 출세에 대한 욕망을 버린다.

21) 정출현의 논의에 의하면, 유연수는 성찰보다는 자신이 속한 신분의 이해관계에 더욱 철저한 인물인 것으로 보인다. 정출현, 『김만중 소설 다시읽기-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사씨남정기>』,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2000, 406~409쪽.

모든 수양의 결과라기보다는 환경의 평안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17세기 애정전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모두 재자가인형 인물로, 군자형 인물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주생전>의 주생은 부귀나 평안함 혹은 성적 욕망과 같은 세속적 욕망이 강한 인물로서, 군자와는 무관한 인물이라 하겠다.

<금오신화> 이후 몇몇 대표적 작품들을 살펴보니, 막상 고전소설에서 군자의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 인물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시기 소설들에서도 ‘군자’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때의 군자는 주로 신분이 높은 남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17세기 들어 국문장편소설이 대두하면서 남자 주인공들의 인물 형상화에 차별적인 지점이 나타난다. 군자형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다. 군자형 주인공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작품으로는 17세기 후반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소현성록> 연작을 들 수 있다. 삼대륙계 국문장편소설의 효시인 <소현성록> 연작의 주인공 소현성은 ‘유교적 가치들을 내면화하고 그 신념체계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가치 판단의 준거에 따라 신중하고 진지하게 실행하는 인물로 형상화’되며, 그 과정을 보여주는 구체적 서사를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남의 시선보다도 자신의 선택이 더욱 중요한 개인이며, 배운 대로 실천하려 하는 지행합일의 유교적 지식인상이자 군자상을 추구하는 고민의 과정을 지닌 인물²²⁾이다. 인격 수양을 위한 연마 즉 서당에서 독서에 침잠하는 장면, 성적 욕망을 통제하는 자제력 및 삶의 국면 국면에 결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유자적 태도 등이 그려지는 이 인물은 가문을 이끌어 가기에 이상적인 인물로 그려진 군자형 가부장이다.

<유효공선행록>의 유연 역시 작품 문면에 아예 ‘효우군자’라는 표현이

22) <소현성록> 연작의 주인공 소현성이 군자형 인물임을 분석한 논문으로는 조혜란,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 36집, 한국고소설학회, 2013 참고.

등장하는 인물이다. 서술자도, 등장인물도 유연을 군자로 지칭하고 있다. 유연은 효우(孝友)한 인물인데, 그의 인격적 수양은 바로 그의 효우에 대한 시험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는 아버지에 대한 효를 수행하고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억울한 누명도 밝히지 않고 참으며, 사대부로서의 자신의 인생조차 포기하면서 참는다. 다른 인격 수양의 장면은 잘 그려지지 않으나 효우로 인한 인내의 과정이 충분히 서사화되면서 유연의 어둠, 군자 됨이 강조되는 것이다. 소현성의 군자 됨이 일상의 여러 국면에 대한 재현으로 형상화되는 것에 비해 유연의 군자 됨은 효우와 관련한 작품의 전반부에서 잘 그려진다. 전반부의 유연은 효우를 수행하기 위해 순임금 고사를 실천하려 한다. 성인을 닮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후반부의 유연은 가문의 가장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하는데 전력하면서 점점 폭력적 가부장의 면모를 띠게 된다. 가문의 유지와 창달이라는 세속적 논리에 적응해 가며 군자로서의 그의 성격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다. 이때 그가 보여주는 가부장상은 자신이 어렸을 때 경험했던 폭력적 가부장인 아버지 유정경의 가부장 형상에 가깝다. 가문을 세우려다 보니 죄인 동생도 옹호해야 하고 처자 구박도 자심하다. 이런 후반부의 모습은 군자 형상과는 거리가 있다. 유연이 죽었을 때에는 천자가 문상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리가 첩시(撤市)를 할 정도로 모두들 애도를 표한다. 이런 타인들의 애도에 비하여 막상 부인의 애도는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서술되는데²³⁾ 여기에는 가문 논리를 우선하여 부인과 아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하며, 냉대와 분노라는 감정적 대응을 한 것도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화될 정도로 서술 분량이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이 작품에서 유연은 충신의 역할은 제대로 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가 남

23)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 수행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소설 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168쪽.

을 이롭게 한 부분이 있다면 충신으로 조정에서 벼슬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부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반부 유연의 경우, 인격의 수양 면에서는 군자유(君子儒)의 모습을 잃어간다. 유연의 경우는 성인을 추구 하던 군자형 인물에서 세속적 가치를 받아들이며 가문의 대표자, 완고한 가장으로 옮겨간 경우에 해당한다. 후반부 유연이 보였던 토혈과 같은 병 증은 전반부의 군자를 지향하던 본래적 자기를 포기하고 결국 가문의 상속자로서 자신을 정체화하는 과정에서 남게 된 흔적이라 하겠다.

마지막으로 <창선감의록>의 화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인물은 군자에 대한 당대의 기대를 엿보게 한다. 사회에서는 군자를 긍정적으로 여기나 아버지가 자식에게 거는 기대는 군자가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것이다. 이 작품의 화진 역시 지극한 효우로 자신을 음해 하던 계모 심씨와 이복형 화춘을 감동²⁴⁾ 시킨 인물이다. 계모와 형 화춘의 죄상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침묵하며 억울함을 받아들이는 그의 효성은 <유효공선행록>의 유연이 자신의 친부와 동생에게 행하던 효우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작품에서도 화진이 학문을 닦거나 인격을 도야하는 자체가 서술되지는 않으나 심리적 평정 상태나 온유함 등의 측면에서 화진은 유연과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그는 비교적 일관된 정서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²⁵⁾. 또 화진은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그가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엄승이 정권을 잡고 나라가 어지러워 지자 아버지 화육이 이를 걱정한다. 걱정 어린 아버지의 말을 들은 화진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금은 물러날 때라는 의견을 말한다. 물론 이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다른 정황에 대한 고려 없이 암기한 대로 상황

24) 이에 비해 유연의 효우는 자신의 부친이나 동생을 감화시키지는 못 한다.

25) 화진 역시 분노하는 장면이 있는데, 화춘의 첩이었다가 처가 되어 화씨 집안에 분란을 초래한 조씨에게 분노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에 적용해서 말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 화옥은 이 말을 듣고 곧 장 사직을 결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 어린 아들의 말이 큰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흥미로운 비교가 가능한 장면이 등장한다. 아버지가 자식에 거는 기대의 실체가 무엇이었을까를 추측하게 하는 장면이다. 은거하던 고향에서 편안히 지내던 화옥은 어느 날 아들과 조카 성생을 데리고 후원을 거닐다가 이들에게 시를 지어 보도록 시킨다. 이때 화옥은 조카가 지은 시를 보고는 ‘침후하고 온중한 것이 진실로 군자의 글답구나’라고 평가하고, 아들 화진의 시를 읽고는 ‘두 편의 시를 보니 모두 왕공으로 부귀를 누릴 상’이라고 하면서 화진을 ‘집안을 일으킬 아이’로 평가한다²⁶⁾. 이 작품에서 화진은 군자형 인물임에 분명하다. 게다가 정답을 이야기하듯 대답한 그 아들의 영향으로 사직을 결심했을 정도이니 아들에 대해 군자라고 여겼을 법도 하다. 그러나 이 대목을 보면 자기 자식에 대한 평가로는 ‘군자’보다는 ‘왕공’을 선호했던 아버지의 마음 저간이 짙이는 듯하다. 당대 부모의 욕심 혹은 기대와 관련하여 해석해 볼 만한 대목이다. 답론 상으로는 군자를 지향하고 긍정했으나 자기 가족구성원 특히 아들은 군자만으로 표상되기보다는 세속적 부귀도 함께 하기를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전소설에서 군자로 언급되는 인물로는 <완월회맹연>의 정인성도 있고, <조씨삼대록>의 조성도 떠오른다. 조성은 조무와 쌍둥이 형제로 등장하는데 조무가 영웅호걸형 인물이라면 조성은 ‘정대군자’형 인물이다. 침묵단정하고 온중하며, 유교의 성현들을 숭상하고 날 때부터 효제충신

26) 이지영 옮김, 『창선감의록』, 문학동네, 2011, 24~26쪽. 조카 성생의 시는 수록되어 있지 않고, 화진의 시 두 수만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화옥의 이 평가에 대해 판단할 근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孝悌忠信)의 사행(四行)을 알았으며, 종일 서책을 대하여 고급의 책을 널리 읽는 조성은 군자형 인물에 속한다. 또한 그는 광동 지방의 자사가 된 후 선정을 통해 유자로서의 경륜을 베풀어 백성들을 이롭게 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조씨삼대록>에서 조성은 이 작품을 끌고 나가는 일인(一人)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형 조무과 더불어 가문을 책임지는 인물에 해당한다. 이는 가문을 유지 창달하기 위해서는 영웅호걸형 인물과 정인군자형 인물이 다 필요하다는 현실 인식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²⁷⁾. 그런가 하면 <완월회맹연>의 경우는 앞의 작품들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드러난다. 기존 논의에 의하면 이 작품은 군자당 대 소인당의 정치적 구도로 접근하면서, 군자당 안에도 소인이 있을 수 있고 소인당 안에도 군자가 있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²⁸⁾. 이는 실제의 정치적 상황이나 현실 맥락과 닿아 있는 설정이라 하겠다.

답론 상으로는 군자 혹은 선비의 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인물을 조명하기 시작하면 군자 혹은 선비와 그렇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 또렷하게 구별하여 설명하기 어렵다. 구체적인 개인은 각자마다 선택이나 성향이 조금씩 다 다르고 이런 차이에 따라 군자행(君子行)을 실천하는 방법 또한 다기하게 전개되기 때문²⁹⁾이다. 뿐만 아니라 족적이 뚜렷한 인물이 아닌 경우에는 군자와 소인 간의 경계조차 불분명하게 느껴

27) 본전은 군자형 인물인 소현성을 중심으로, 별전은 영웅호걸형 인물인 소운성을 중심으로 가문을 이끌도록 한 <소현성록> 연작의 경우도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겠다.

28) <완월회맹연>의 군자당 대 소인당 구도에 대한 논의로는 정병설,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 『국문학연구』 4, 국문학회, 2000, 231~249쪽 참고.

29) 금장태의 책 중 '선비정신의 역사적 구현' 부분을 보면 큰 틀에서 선비라는 범주로 묶어 선택하기는 했어도 개별 인물마다 약간씩 다른 양상들을 보이는 정황이 잘 드러난다. 연구자 역시 각각의 하위분류에 따른 설명을 시도하나 이를 다시 총괄하여 하나의 군자상을 도출해 내는 방식을 취하지는 않는다. 금장태, 앞의 책, 141~266쪽.

지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현실 속의 구체적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하나의 군자나 선비상을 정립하는 일은 불가능해 보이기까지 한다. <소현성록>과 같은 17세기 작품에서는 군자형 주인공에 대해 전형적인 재현을 시도했다면 <완월회맹연>과 같은 후대의 작품에서는 보다 현실적인 맥락이 반영되어 서사화되었다고 하겠다.

2) 은사, 처사의 경우

앞에서도 언급했듯 은사(隱士)는 벼슬했다가 낙향하거나 지방에 거하는 경우로, 작품 속에서는 이는 주로 간신이 득세했을 때 나타나는 선택이다. 이에 비해 처사(處士)는 벼슬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로, 산림에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하는 경우가 유가의 처사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는 군자의 다른 모습일 수 있다. 그런데 드물기는 해도 소설의 주인공으로 군자가 등장하는 경우는 있으나 위에서 언급한 은사나 처사가 주인공인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부수적 인물로 ‘처사’는 자주 등장하며 산 속에 은거하는 도사 역시 빈번하게 등장하므로 이 인물들을 중심으로 군자형 인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소설에 등장하는 은사형 인물의 대표적 경우는 주인공의 아버지를 들 수 있다. 주인공의 아버지들은 대개 조정에서 벼슬을 하다가, 간신 혹은 암주(暗主)를 만나 충언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충신이 귀양을 가고 나라가 어지러운 지경에 빠지게 되면, 사직하고 은거 생활을 하기로 결심한다. 이때 은거에 대한 결심은 별다른 고민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³⁰⁾. 또 대개의 경우 낙향 후의 은거 생활은 자연을 벗해 여유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려진다. 앞에서 본 화옥의 경우도 그 한 예라 하겠다. 그런

30) 주인공 부모의 은거 역시 귀양의 형식을 띠는 경우도 있다.

데 이 인물들은 서사 속에서 별다른 사건으로 연루되지 않거나 아니면 일찍 죽어 서사에서 사라진 채 배경으로만 남는다. 소현성의 아버지 소광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 하겠다. 그는 낙향한 후 유복자 소현성을 남기고 일찍 죽고 만다. 이 같은 인물들은 난세일 때 결연히 물러난다는 점에서 군자일 수 있으나 서사에서 재현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 이상을 논하기는 어렵다.

처사란 원래는 벼슬살이를 선택하지 않고 학문에 정진하는 부류이다. 고전소설 속 처사는 난세를 피하거나 혹은 속세 자체를 피해 깊은 산속에서 사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런데 그들이 학문에 정진하며 제자들을 길러내는지 혹은 필요한 경우 조정에 등용되기도 하는지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작품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까닭에 처사는 때로 도사와 이미지가 겹쳐지거나 아니면 앞에서 언급한 은자(隱者)³¹⁾처럼 비추어지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박씨전>의 박처사나 <구운몽>의 양소유 아버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금강산에서 묻혀 지내는 인물들이다. 이들이 세상과 절연한 채 금강산에서 은거하게 된 까닭은 나타나지 않으나 모두 도술적 능력을 지닌 인물들이며, 양소유의 아버지는 아예 신선으로 지칭되고 있다. 신선으로 지칭되든 아니든 이 같은 ‘처사’들은 유교의 군자의 범주로 묶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은 군자보다는 은자나 도가적 은일지사에 가까운 인물들인데, 이는 영웅일대기 구조를 지닌 작품에 등장하는 처사나 도사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즉 원래의 은사나 처사는 개념상 군자형 인물의 다른 형태일 수 있으나 고전소설 속에 등장하는 처사나 도사의 모습은 유가적 군자형 인물과는

31) 『논어』에 등장하는 7명의 은자들은 무위지위(無爲之爲)를 가치로 여긴다는 점에서 도가적 면모와 상통하기도 한다. 이 은자들은 은일지사로,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은거를 선택한 은사와는 구별된다.

거리가 멀며, 오히려 도가적 인물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개 기능적으로 등장하는 고전소설 속 처사나 은사는 도가적 성향을 지닌 인물들이 많으며, 군자형 인물들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처사가 다 <박씨전>이나 <구운몽>의 주인공 아버지와 같은 형상인 것은 아니다. <임씨삼대록>의 임관홍 경우는 오히려 전형적인 유가적 처사의 모습을 지닌다. 그는 문벌 높은 집안의 자식으로 가문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인물이었는데, 아버지의 비리를 알게 된 후 자기 가문의 명예가 실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인물이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중요한 부분의 허위성에 대해 눈뜬 임관홍은 큰 가문의 남성 구성원으로서,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리고 대부를 꿈꿨던 사로서의 자신에 대해 갈등하고 성찰하게 되며, 그 결과 벼슬을 포기하고 평생 그냥 처사(處士)로 집안의 깊은 한 곳에 처하여 독서하기로 선택한다³²⁾. 드물기는 하나 처사로 자처하기로 한 과정이 사건으로 서술되는 <임씨삼대록>의 임관홍 같은 인물은 지행일치를 실천해 내려 하는 군자형 인물로 재현된 경우이다.

3) '소위 군자'에 대한 비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고전소설의 등장인물 중 군자는 별로 많지 않다는 점이며, 군자형 인물이 등장할 때에라도 서사적 관심이 진정 자기 인격의 완성 자체에 놓이는 경우 역시 매우 희소하다는 점이었다. 그런데 아래 작품에 이르면 군자는 존재하지 않거나 허명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지 회의하게 된다. 유교의 담론 상에서 이상적으로 거론된

32) <임씨삼대록>에서 재현해 내는 임관홍의 인물 형상에 대해서는 조혜란, 『가문과 개인 사이 - <임씨삼대록>의 임관홍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참고.

군자상을 재현해 낸 경우와는 달리 아래 작품들의 경우는 ‘소위 군자’ 즉 당대 맥락에서 ‘군자라고 불렀던’ 이들의 현실태를 재현해 낸 경우에 가깝다고 하겠다.

현실에서는 군자 혹은 선비의 개념에 부합하는 인간들을 만나기 어렵듯 군자정신 혹은 선비정신에 입각한 윤리 또한 제대로 군자들의 것인지 여부도 가리기 어렵다. 연암 박지원의 전들 중에는 군자와 관련한 이러한 당시의 세태를 잘 보여주는 작품들이 있다. 대표적인 작품이 ‘소위 군자’의 사궤를 비판한 <마장전>이며, 엉터리 도학자를 다룬 <호질>, 군자가 신분과는 별개의 덕목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덕선생전>과 같은 것들이다. 이 작품들은 잘 알려진 작품들이기에 부연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연암에 이르면 조선 후기의 군자란 단지 지위와 권세 혹은 명예³³⁾를 지닌 자들에 대한 호칭이 된 것으로 보인다. 연암은 진정한 사궤에 대해 ‘군자의 사궤와 말거간꾼의 사궤’이라는 좌표 위에서 견주기 시작했는데, 중국에는 ‘군자’가 중요하게 거론한 가치와 비천한 존재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등치되고, ‘소위 군자’들의 사궤는 이익을 놓고 가늠하는 말거간꾼들의 흥정과 등치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중국에는 비천한 존재들이 군자의 사궤이라는 가치를 선택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군자라 불렀던 신분 높은 ‘소위 군자’와, 신분과는 무관한 비천한 군자들이 대비되는 작품이 <마장전>이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권세와 명예, 부귀가 함께 있는 ‘소위 군자’들이 ‘군자’ 행세를 하면서, 군자 혹은 처사는 경제적 토대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정황을 보여주는 작품도 등장한다. 이옥의 <유광역전> 같은 작품이 이에 해당한다 하겠다. <유광역전>은 선비의 몰락을 보여준다.

33) 연암은 <마장전>에서 이를 ‘세명리(勢名利)’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과거공부에 연루된 수많은 유자들이 후경화되어 있으나 그 중 군자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거듭 낙방한 후 매문(賣文)을 하다 자살에 이른 유광역이라는 인물을 조명한 <유광역전>은 선비 혹은 선비정신도 성인(聖人)을 추구하는 유가적 '정신'만으로는 유지 불가능한 것이라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유가의 군자란 당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적 안목을 장착한 인물형이다. 군자나 선비정신이 개인의 덕성을 수양하여 타인을 이롭게 하는 정치력까지 발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면 현실 정치에서도 문제 해결력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게 된다. 그러나 연암의 전이나 <유광역전> 같은 작품에 이르면 '군자'와 '소위 군자'들의 뒤섞임 속에서 '소위 군자'들이 득세한 세상을 보여줌으로써 군자라는 인물을 부재(不在)의 형태로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들은 당대 맥락에서 군자라고 불렀던 이들이 실은 진정한 군자는 아니었던 현실을 반영하는 동시에, 서사의 향유층들이 군자라는 이름에 걸었던 기대치, 스스로를 군자로 정체화한다 해도 맞닥뜨렸을, 타협과 협상을 요구하는 구체적 삶의 정황들, 그리고 사회적 구조의 문제점 등을 보여준다. 이는 현실 맥락에서 군자를 고찰할 때 연루되는 문제들이다.

4. '여중군자'와 여성 인물의 경우

군자(君子)와 소인(小人)으로 논하면 대개 소인은 비판 내지 비난의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군자를 지향해야 마땅할 사람이 소인처럼 자신의 이익만 추구했기에 듣게 되는 비판인 것이지, 원래 소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같은 가치평가적 의미를 지닌 것은 아니었다. 원래 '군자/소인'의 분류는 도덕적 성취 여부만이 아니라 신분의 높낮이로 구분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신분이 낮은 일반백성으로서의 소인은 농공상

(農工商)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이다. 유가의 체계에서는 군자는 의(義)를, 소인은 이(利)를 추구하는 존재로 기대³⁴⁾하였다.

그러면 여성을 소인으로 칭했을 때는 어떤 함의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 마찬가지로 유가의 체계에서 ‘군자/소인’ 논쟁은 여성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자와 소인, 즉 여성과 소인은 동계에 놓이는 것³⁵⁾으로, 여성의 경우에는 소인이라 칭해도 도덕성에 대한 비난이 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그 반대의 경우, 즉 여성 스스로가 이(利)가 아닌 의(義)를 추구했을 때³⁶⁾에는 그 행위에 대해 기려주는 의미에서 여중군자(女中君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같이 조선조 현실에서는 ‘소인과 동계에 놓였던 여성’에 대해 군자 혹은 선비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예가 종종 발견되어 이 역시 논의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³⁷⁾.

실제 조선시대 문집을 보면 여중군자보다는 여사(女士)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여사(女士)는 『시경』³⁸⁾에서도 보이는 단어인데, 『시경』에서는 훌륭한 자손을 얻는 것과 관련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런 맥락은 여사(女士)를 사용하는 조선시대 글쓰기에서도 여전히 수용되고

34) ‘子曰, 君子喻於義, 小人喻於利’, 『논어』, 『이인』

35) ‘唯女子與小人爲難養也, 近之則不遜, 遠之則怨’, 『논어』, 『양화』

36) 군자/소인에 대한 가치평가적 측면과 여성과 군자/소인에 대한 논의는 김미영, 『유교 가족이념에 나타난 여성존재의 이중성』, 『철학연구』 106, 철학연구회, 2014, 33~38쪽.

37) 남성의 경우는 유교 담론을 통해 군자형 인물에 해당하는 개념을 먼저 추출하고 이를 토대로 소설 속 인물을 비교 고찰하는 것이 가능했던 데 비해 여성의 경우는 여중군자, 여사 등의 단어가 조선시대 문헌에 등장한 실제 예를 통해 인물형을 추정하였다. 유교 경전에서는 여성에게 군자행을 기대하지 않았기에 유교 경전에서 ‘여중군자’에 해당하는 인물형을 추출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런 정황으로 인해 여성의 경우는 경전보다는 조선시대 실제 사례를 토대로 검토하기로 한다.

38) ‘其僕維何, 釐爾女士, 釐爾女士, 從以孫子’, 『시경』, 『대아』, 《생민지십》, <기취>.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여사’는 문집 외에 조선후기 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도 그 용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실록의 경우 여사(女士)가 사용된 예는 14살 여자 아이에서부터 왕후와 대왕대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신분의 여성에게서 발견되며, 여자로서 수행한 사행(士行)의 덕목 역시 부드러운 천성부터 지조, 종사(從死), 수렴청정 등 매우 다양한 경우임을 알 수 있다. 『승정원일기』의 경우도 이와 비슷한 양상³⁹⁾을 나타낸다. 여사 용례에 대한 이 같은 양상은 문집에서도 마찬가지⁴⁰⁾인데 흥미로운 것은 어떤 여성 인물을 여사라고 칭했을 때 그 여성이 반드시 한문 교양을 갖춘 인물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한문 교양의 습득 여부보다는 덕성 즉 인격의 측면을 기려주었음을 알 수 있다.

‘여중군자’의 경우는 여사에 비해 사용 빈도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사라는 표현이 사용된 여성인물에 비해 여중군자라는 표현이 사용된 여성은 그 수가 매우 적다. 앞의 논의에 의하면, 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조선 여중군자의 예는 혜경궁 홍씨, 화순옹주 등이다. 그런데 이 인물들은 모두 궁중의 여성이고 전자는 아름다운 덕으로, 후자는 종사형 열행으로 기려지고⁴¹⁾ 있다. 문집에서도 여중군자를 사용한 예는 매우 드문데 반가 여성 중 여중군자 호칭이 붙었을 때에는, 여사의 경우에 비해, 유가적 한문 교양을 갖춘 인물이 많다는 점이 좀 유다른 점이라 할 수 있겠다. ‘여중군자’ 호칭을 들었던 여성으로는 안동 장씨나 강정일당, 임윤지당 등을 들 수 있다. 즉 여중군자 호칭의 경우는 한문 교양에 기반한 덕성을 높이 평가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

39) 조선후기 실록과 승정원일기에서 ‘여사’의 용례를 살핀 연구로는 이남희, 『조선 후기의 ‘여사’와 ‘여중군자’ 개념 고찰』, 『역사와 실학』 47, 역사실학회, 2012, 47~50쪽.

40) 문집에 나타난 여사(女士) 용례는 김정미 외, 『17세기, 18세기, 19세기·20세기 초 여성생활사자료집』(보고사)을 대상으로 살핀 결과이다.

41) 이남희, 앞의 논문, 52~55쪽.

조선 시대의 현실 맥락에서는 여성에게도 사(士)나 군자(君子) 호칭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소설의 경우에도 여사나 여중군자와 같은 인물형이 등장하는지 궁금하다. 고전소설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들 중에는 한문 교양을 갖춘 경우가 꽤 많다. 그녀들은 자신들의 소회를 시로 읊을 정도의 한시 교양까지 갖추기도 한다. 그렇다면 그녀들이 모두 여중군자형에 버금가는 인물들인가? 앞에서 검토한 용례를 염두에 둔다면, 아무리 한문 교양이 빼어나다 해도 덕성의 측면에서 진중함이 보이지 않으면 여중군자라는 칭호가 적당해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가 하면 소설 속에는 유독 여성에게 고난이 닥치는 경우가 많다. 많은 여성 인물들이 부당한 대우를 참고 견디며, 절개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향한 투신을 감행한다. 여성 주인공들은 대개 남성 인물이 혹은 시택이 자신을 받아들여줄 때까지 고난을 참으며 인내한다. 참으며 인내하며 인격을 도야하는 것은 군자의 중요한 표지 중 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고전소설의 여성 인물에는 여성군자형 인물이 많다고 봐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차이가 짙어진다. 소설 속 여성인물들이 참고 인내하는 것은 도덕적 자발성의 측면보다는 당대의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규제하는 삶의 논리가 있어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녀들의 인내는 인격 수양의 표지라기보다는 순응이나 훈육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군자의 도덕성은 행위의 자발성에서 비롯하는 것이기에 바로 이 점에서 소설 속 여성인물들을 군자로 볼 수 있을지가 모호해지는 것이다. 이 같은 질문은 <사씨남정기>의 사씨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과 맞닿아 있다. 김춘택은 사씨를 도덕의 보편적 주체로 인식하면서 한역을 시도했지만, 가부장제 하에서는 여성이 도덕적 판단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이 소설은 사씨라는 인물의 도덕적 주체성의 내용적 모순 또한 드러내게 된다는 지적⁴²⁾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종종 눈에 띄는 여사나 여중군자가 소설 속 여성 인물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설이라는 장르적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일 수 있다. 즉 소설적 몰입을 위한 장치 중 하나로 고전소설에서는 여성 인물들의 고난 서술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때 여성들의 고난은 유교적 가부장제라는 조선의 최종심급과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부장제 혈통의 순혈성 문제와 연관되는 정절 모해, 음양론 및 내외법에 따른 여러 규제들, 처첩 제도를 인정하는 데서 비롯된 모순 등이 여성인물들에게 심각한 고난을 초래하도록 하는데 이 같은 문제들은 조선의 기본 체제인 유교적 가부장제의 승인과 맞물려 있는 것들이다. 여성인물은 가부장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고난을 초래하는 문제들 역시 가부장제의 승인 하에 행해지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에 여성인물들은 그 행동과 결단에서 주체적 선택의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결과, 마지막 선택은 여성 인물 자신이 아닌, 가부장제의 승인이라는 장치에 달려 있게 된다. 남성인물들의 공간 이동이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여성인물들이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은 상황에 의해, 타의에 의해 떠나가게 되는 경우⁴³⁾가 많다. 참고

42) 김춘택이 강화한 이상적 도덕 주체로서의 사씨 형상에 대한 모순은 류준경, 『<사씨남정기>를 통해 본 소설사의 전변의 한 국면』, 『국문학연구』 31호, 국문학회, 2015 참고. 사정옥을 가부장제 승인과 관련하여 논의하고, 화진을 효우에 대한 정치적 맥락을 간파하고 있었던 인물로 논의한 기존 연구들 역시 이 인물들이 지니는 마지막 수동성의 문제에 대한 해석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사정옥의 경우는 정출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사씨남정기>』, 『배달말』 27, 배달말학회, 2000; 화진의 경우는 이지영, 『규범적 인간의 은밀한 욕망』,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참고.

43) 이와 관련하여 <현몽쌍룡기> 연작의 경우 영웅호걸형 남성인물들의 길 떠나기가 대부분 자신들의 출전 의지에 따른 것임에 비해 정인군자 유형의 남성인물들의 길 떠나기는 모두 타의에 의한 길 떠나기였다는 보고는 흥미롭다. 강우규, 『<현몽쌍룡기> 연작에 나타난 '길 떠남 이야기'의 의미·기능 고찰』, 『어문연구』 통권 1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20~221쪽.

인내하나, 타의에 의해 떠나가고 타의에 의지하여 삶을 연명하는 여성주
 인공이라면 과연 여중군자형 인물일 수 있는가? 여중군자형 인물로 보기
 에는 주체성 측면이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소현성록>의 양부인
 같은 경우는 그 진중함으로 인해 혹은 가부장제의 법을 대행하는 모습으
 로 인해 여중군자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양씨의 경우는 딸 교
 영에게 자살을 명하는 순간에도 자동화된 인식 경로에 따라 움직이는 것
 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법을 어긴 아버지 문제를 놓고 순임
 금이 보이는 고민이나 모색의 기색 없이 현 체제를 잘 유지하기 위해 외
 부에서 주입된 규율, 법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집행자인 것처럼 보이기 때
 문이다. 양씨는 작품의 곳곳에서 사리 바른 판단을 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자신이 대리하는 가부장 역할에 균열을 낼 만한 상황을 마주하자
 그 이상의 판단이 정지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는 상대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여사나 여중군자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일까? 문집에 수록된 여성인물의 경우,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조선사회의 체제를 구
 성하는 가부장제를 벗어나는 문제는 아니다. 물론 사회 같은 정치적 안전
 에 휘말려 죽음을 선택하는 여성도 있으나 대부분은 체제의 틀이 문제가
 아닌, 심각한 가난이나 가족의 죽음 같은 인간의 보편적 삶에서 발생하는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들인 것이다. 이 경우 여성들은 다시 법의
 승인을 받고 받아들여져야 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태, 즉 이미 승인된 상
 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관계의 문제들을 그녀들의 유교적 교양의
 토대 위에서 풀어갔던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그녀들의 인내와 더불어 상
 황을 타개해 가는 정신을 보면 그녀들의 경전 공부나 진정 위기지학(爲己
 之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정일당 같은 인물이 여중
 군자의 칭호를 받은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남성 군자의 경우 현실과 소설 양자에서 추적이 가능한데 비해 여성 군자의 경우는 오히려 현실에서는 그렇게 불린 이들이 있는 반면 소설의 등장인물에서 찾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는 않는다. 군자의 경우 참고 인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이를 통해 매이지 않을 수 있는 인격의 도야가 이루어진다. 소설 속 남성 군자형 인물이 여러 억울한 정황 속에서 계속 참는 일을 반복했던 것은 이 같은 정황의 서사화일 수 있겠다. 이 점을 상기해 보면 인내의 자질은 군자 되기에 있어 중요한 자질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인내는 여성에게 더 많이 요구되었던 것이기도 하다. 여성의 경우 소설이 아닌 현실 속 인물에게 군자라는 호칭이 주어진 것은 철저하게 성별화되어 제도화된 음양이론이 일상적 삶에 미친 영향력과 맞물려 이해할 수 있겠다.

5. 결론 : 고전소설과 군자의 관계

군자는 학문과 수양을 통해 자기인격의 완성을 도모하는 동시에 난세 여서 벼슬에서 물러났다고 해도 현실 권력에 대한 비판 정신은 놓치지 않는 사회적 지식인들이다. 본고는 현실 맥락에서 담론적으로 구성된 군자상을 준거로 하여 고전소설 등장인물 중 군자형 인물을 찾아보는 작업을 진행했다.

현실에서는 벼슬하기도 어렵고 올라간 벼슬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고민과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벼슬에서 물러나는 일은 매우 간단하게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해당인물이 물러나서 잃어버릴 것을 연연해하면 이미 소인이 되는 것일 터인데 소인형 인물들은 주인공으로는 잘 등장하지 않는다. 주인공들은 과거에 응시했다 하면

장원급제이고, 천자는 자꾸 불러 벼슬을 제수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오히려 벼슬에 안 나가는 것이 더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 고전소설의 주인공으로 군자형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는 17세기 이후의 일인 것으로 보인다. 소현성은 경전에서 거론하는 군자적 자질을 작품 속에서 충실하게 재현하고자 노력한 남자 주인공이라 하겠다. <금오신화> 이후 수많은 사(士)들이 남자 주인공으로 등장했으나 군자형 인물이 재현된 것은 17세기에 들어서인데 이는 16세기 심성론의 발달로 인한 수양의 강조, 유가적 이상형의 제시, 성리학의 일상적 정착 등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가능했던 시도인 것으로 보인다.

<소현성록>은 소현성이라는 이상적 군자상, 가부장상의 재현에는 성공했으나 내면으로 침잠하는 군자형 인물인 소현성과 같은 인물을 통해 독자가 몰입 가능한 이야기의 재미를 만들어 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소씨 집안이 소현성의 대를 이을 인물로 내세운 인물은 소운성이라는 영웅호걸형 인물이었다. 17세기에 들어서야 나타났던 몇몇 군자형 주인공은 이렇게 금방 다른 시도들로 대체되었다. 그런데 이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갖는 속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도 하다. 소설은 인간의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데 군자형 인물들은 욕망의 발현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며, 또 소설에서는 문제적 인간이 등장하여 그 문제를 어떻게 다뤄나가는가를 보여 주는데 소설에서 등장하는 군자형 인물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재덕이 거의 갖춰진 상태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군자의 인격 수양은 소설에서는 효우의 문제로 성격화되고 사건화된다. 효우 문제가 아니면 재덕을 겸비한 군자형 주인공이 참고 견딜 만한 당위를 만들어 내기 어려워서 그런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여성인물들이 다양한 이유로 인내해야 하는 것과 비교될 만한 지점이다. 조선시대 현실에서는 오히려 여중군자로 불린 이들이 있는데 반해 소설 속 여성인물들은 사건

의 성격과 자발성 문제로 인해 군자로까지 불릴 만하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속고가 필요하다.

소설에서 군자형 주인공이 별로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군자형 인물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현실에서 군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황이 소설 속에 포착되면서 이야기 속에서 군자는 은일지사의 모습으로 바뀌든지 혹은 자취를 감추게 된다. 소설은 현실보다 더 이상화된 재현을 시도한 까닭이다. 도구화된 교양을 지닌 인물이 아니라 학문이 인격 도야까지 나아가 내면세계를 형성하는 군자형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것은 소설사의 측면에서 중요한 시도라 하겠다. 군자형 주인공은 가문소설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러나 이 같은 인물이 지속적으로 변주되면서 다양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문소설이 추구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시사해 준다. 연암과 이옥 같은 이들은 당대 조선 현실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군자유에 대한 대안적 허구를 마련하는 대신 현실의 구멍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는 군자라는 인물에 대한 이들 작가들의 진지한 접근과 고민에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이렇듯 고전소설에서 재현하는 군자형 인물들은 인물 유형으로서 견고한 다수 혹은 집단으로 거론하기에는 그 수가 부족해 보인다. 여성인물의 경우는 정황상 거론하기 어렵고 남성 인물들 역시 많지는 않다. 또 남성 인물의 경우도 인물을 재현해 내는 서술 상의 차이로 인해 군자형 인물들은 주로 장편국문소설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고전소설에서 재현해 내는 군자형 인물들은 당대 소설 향유층들이 군자라는 호칭에 대해 지녔던 기대치를 기늬하게 해 준다. 그러나 ‘소위 군자’와 관련한 문제나 여성 군자형 인물의 부재 등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고전소설에서 군자형 인물의 향방이 보여주는 의미는 바로 그 작품이 지향하는 가치, 향유층의 욕망 등을 오히려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박일봉 편역, 『논어』, 육문사, 1997, 1~593쪽.
- 이지영 옮김, 『창선감의록』, 문학동네, 2011, 1~481쪽.
- 강봉수, 「〈논어〉 속의 인간상 연구」, 『도덕윤리과교육연구』35호, 한국도덕윤리과 교육학회, 2012, 51~78쪽.
- 강우규, 「〈현몽쌍통기〉 연작에 나타난 ‘길 떠남 이야기’의 의미·기능 고찰」, 『어문 연구』 통권 153,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2, 213~234쪽.
- 금장태, 『한국의 선비와 선비정신』, 서울대 출판부, 2000, 1~276쪽.
- 김미영, 「유교가족이념에 나타난 여성존재의 이중성」, 『철학연구』106, 철학연구회, 2014, 23~43쪽.
- 김연중, 「선비, 그 용어의 기원과 의미의 내함」, 『퇴계학논집』15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14, 41~65쪽.
- 김태수, 「조선시대 은거선비들의 산수경영과 이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231쪽.
- 류준경, 「〈사씨남정기〉를 통해 본 소설사의 전변의 한 국면」, 『국문학연구』31호, 국문학회, 2015, 7~38쪽.
- 박종혁,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군자론」, 『한국학논총』37,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2, 731~755쪽.
- 변창규, 「남명 조식의 선비정신과 출처관」, 『민족사상』7권 2호, 한국민족사상학회, 2013, 213~236쪽.
- 이남희, 「조선 후기의 ‘여사’와 ‘여중군자’ 개념 고찰」, 『역사와 실학』47, 역사실학회, 2012, 44~65쪽.
- 임현규, 「공자의 군자론과 철학의 이념」, 『동방학』20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11, 143~166쪽.
- 정병설, 「조선후기 정치현실과 장편소설에 나타난 소인의 형상」, 『국문학연구』4, 국문학회, 2000, 231~259쪽.
- 정출현,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질곡과 〈사씨남정기〉」, 『배달말』27, 배달말학회, 2000, 397~424쪽.
- 이지영, 「규범적 인간의 은밀한 욕망」, 『고소설연구』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23

~152쪽.

정선희, 『영웅호걸형 가장의 시원-〈소현성록〉의 소운성』, 『고소설연구』 32, 한국고소설학회, 2011, 153~185쪽.

조혜란, 『〈유효공선행록〉에 나타난 효제 수행이 부부관계에 미치는 영향』, 『고소설연구』 39, 한국고소설학회, 2015, 141~175쪽.

_____, 『가문과 개인 사이 - 〈임씨삼대록〉의 임관홍을 중심으로』, 『고소설연구』 29, 한국고소설학회, 2010, 255~289쪽.

_____, 『소현성과 유교적 삶의 진정성』, 『고소설연구』 36, 한국고소설학회, 2013, 167~200쪽.

ABSTRACT

A Research on the Confucian Gentlemen type characters in the Classical
Novels of Chosun Dynasty

Cho, Hae-ran

Confucian sacred texts had presented the Confucian gentleman(君子, jun zi) as the most exemplary person. In the period of Ha-eun-ju(夏殷周), the word '君子' had been used to indicate the nobleman. Since Confucius, Confucian gentleman referred to the intellectuals who tried to attain the perfection of their personality and to practice their ideals in reality through study and self-discipline. This paper aims to examine how the Confucian gentleman type characters were represented in the classical novels of Chosun dynasty and interpret the meaning of it.

For this purpose, firstly the concepts of the Confucian gentleman were explored. In Chosun dynasty, those words such as seonbi(선비) which means a man of virtue, eunsa(隱士) which means a retired scholar, and chuhsa(處士) which means a retired scholar were similarly used to refer to the Confucian gentleman. The Confucian gentleman type character appeared in *Sohyunseongrok*, a long piece novel written in Korean in the 17th century. It is notable that in the novels of Chosun dynasty, the Confucian gentleman type characters became to turn into the hero characters. This remarkable change might be caused by the tendency that Chosun dynasty preferred the characters who were loyal to their own desires to the Confucian gentleman characters who focussed on cultivation of their personality and the commitment in reality. For women, it is worth noting that while those females called the Confucian gentlewoman(女中君子) who had attained both knowledge and virtue really existed in Chosun dynasty, novels did not represent those kind of women. This absence of the Confucian gentlewoman character in the novels of those times might result from the tendency that female

characters acted not through fulfilling their own ethical choice but through the obedience to the Confucian ideals and their discipline.

Key Words the Confucian gentleman(君子, jun zi), seonbi(선비), eunsa(隱士), chuhsa(處士), the Confucian gentlewoman(女中君子), *Schyunseongrok*

논문투고일 : 2016.04.15

심사완료일 : 2016.04.30

게재확정일 : 2016.05.08